

# 결핵퇴치를 위한 국제 연구기구

##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IUATLD)은 무슨 기구인가?

### 편집부

국제항결핵폐질환연맹은 무슨 기구인가

**국** 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은(IUATLD) 1920년에 설립된 비영리, 자발적 민간기구이다. IUATLD와 그 회원국들은 결핵과 폐질환(AIDS와 호흡기 합병증을 포함해서)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흡연의 해독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데 그리고 지구 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IUATLD의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 〈설립〉

결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적기구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20세기 초에 시작됐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결핵문제는 국제적 관심사의 하나였었다. 1867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초의 의학학술대회의 몇 개 분과회의에서 결핵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다.

1890년을 시작으로 결핵퇴치에 앞장서고자 하는 많은 수의 협회들이 유럽과 북미에서 설립됐다. 결핵퇴치를 위한 방법

들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첫번째 국제모임이었다.

드디어 1920년 국제항결핵연맹(IUAT)이 파리에 모인 31개국 대표들에 의해 결성되었는데 이들은 협회결정을 널리 알리는 의미에서 결핵퇴치를 위한 운동에 힘을 합치기로 서약하는 인상적인 결의를 가졌다.

1966년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으로 명칭이 바뀐 이 기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발적 기구의 하나이다.

### 〈목적〉

1. IUATLD회원국들의 노력을 조정, 지원하고 촉진하는 일
2. WHO, 그외의 세계의 보건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일
3. 결핵 및 폐질환에 관련된 지식과 이와 관련된 지역 보건문제들에 관한 지식을 수집하고 널리 알리는 일. 이와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회의와 의를 갖고 연구하며 간행물들을 발간한다.

## 〈회원은〉

IUATLD는 아래처럼 몇가지 범주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국가회원은 정부의 보건 및 결핵관리 뿐만 아니라 국가별 민간결핵, 호흡기질환 및 폐협회를 말한다.

단체회원은 국가회원에 의해 인준을 받은 협회, 정부기관, 기업 및 재단을 말한다.

개인회원은 국가회의에 가입해 있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명예회원은 예외적으로 IUATLD평의회(집행조직의 하나)의 인정을 받은 저명한 사람을 말한다.

## 〈조직은〉

### 1. 집행부

IUATLD의 활동과 기능을 감독하는 평의회는 1년에 한번 소집되며 이 회의에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온 2명의 대표가 참석한다. 모든 회원국대표는 나라 크기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집행위원회는 평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 IUATLD의 집행기구로서 작용한다. 집행위원회는 IUATLD임원, 8개국에서 온 연맹 전 대표와 IUATLD지역연맹대표로 구성된다.

총회는 IUATLD에 의해 열리는 세계회의에서 소집된다. 총회는 평의회, 집행위원회, 각회원국의 대표, 명예회원 그리고 개인회원으로 구성된다.

### 2. 지역연맹

IUATLD는 그 평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지역동맹을 통해 일을 수행한다.

현재 지역연맹은 다음의 구역으로 나뉘어져있다. 유럽, 아프리카, 중동, 극동,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북미지역연맹, 지역연맹은 회의를 개최하고 자신의 지역내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를 통해 회원들은 자기나라에서 아니면 그 가까운 지역에서 IUATLD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 3. 사무국

사무국은 파리에 사무소를 두고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양한 임원진에는 IUTALD의 행정과 학술기능을 조정하는 사무총장, 행정담당관, 학술이사과 의무담당관들이 있다.

### 4.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IUATLD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두가지 범주의 위원회가 있다. 학술분과위원회와 행정분과위원회가 그것이다. 일부는 상설위원회이고 일부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임시위원회이다.

학술분과위원회는 IUATLD의 학술사업계획에 참여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있다. 위원회회원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전세계의 모든 지역을 빠짐없이 대표한다. 위원회의 사업은 연례회의와 통신을 통해 수행된다. 위원회 위원들은 개별아니면 국제협동연구를 시행하고 기술적 지침을 제시할 의무를 가진다.

행정분과위원회는 IUATLD의 행정과 재정을 감독한다. 이와함께 회의를 조직하고 회원을 임명하며 관련된 활동사항들을 지원한다.

### IUATLD의 주요활동사업은

\* 회람과 회보(IUATLD 기관지), 회의와 학술활동을 통한 회원간의 교류

\* 인쇄물과 세계 및 지역회의, 세미나, 강연회 그리고 통신을 통한 학술정보의 확산

\*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세계항암연맹, 국제보건교육연맹, 나병협회 국제연합, 국제어린아센터, WHO등등)

### 결핵정보관리연구기구 (TSRU)

TSRU는 1965년에 설립되었다. 세계보건기구와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을 했는데 주로 결핵유병률이 낮은 선진국에서 그동안 결핵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조금 남아있는 결핵을 어떻게 하면 마저 박멸할 수 있는가를 모색키 위해 만들어진 선진국들의 모임이었다.

1970년에는 상기 창설국가들 외에 스웨덴이 가입하였고, 1973년에 독일, 1976년에 핀란드, 프랑스, 일본이 가입하였으며 1984년에는 개발도상국권에서 한국과 알제리가 가입하였다. 이 회의에는 각국에서 Directing Committee에 1명과 옵서버 1명이 참가해 회의를 갖는다.

이 TSRU의 목적은 결핵의 역학적 양

상과 각종관리방법의 효과 및 효용성 조사 연구에 두고 있으며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는 1)역학적 표개발 2)환자발견 특히 능동 및 수동방법의 비교 3)비시지의 역할 4)에스키모인에게서의 결핵 5)감염후의 질병경과(內因性 및 外因性再感染) 6)비시지 및 집중자에서의 투베르쿨린반응에 의한 환자발견 7)저유병률국에서의 진단 및 치료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 국제결핵정보관리센터 (ITSC)

ITSC는 네델란드의 헤이그에 있으며 목적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세계적인 규모로 결핵문제 surveillance의 센터역할

2) 투베르쿨린 조사의 지원(우리나라도 1985년 전국결핵실태조사시 전문간호원이 내한해 3주동안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요원을 지도한 적이 있음)

3) 대표 표본군 추출

4) 투베르쿨린반응 검사요원 훈련

5) 투베르쿨린반응 아외자료를 수집분석보고작성

6) 투베르쿨린반응을 위한 주사기, 투베르쿨린용액, 등록카드공급

7)비특이성(non-specific) 투베르쿨린 감수성에 관한 분포, 빈도, 역학적 중요성등 조사

이러한 기구조직 이외에 캐나다에서 비결핵성호흡기질환 특히 소아급성 호흡기질환에 관한 국제적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호흡기질환연구소(비결핵)를 설립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서베이런스(Surveillance)란?

결핵의 서베이런스는 현장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1) 해당집단의 결핵문제의 크기를 밝히고 (2) 결핵관리에 쓰여지는 방안을 평가하여 그 효과를 밝히고 (3) 필요에 따라 개선요청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의 변경을 권고하기도 한다. 결핵 서베이런스는 실질

적으로는 1953년 덴마크의 결핵중앙등록제도(Danish Tuberculosis Index)가 완성되고 1962년 노르웨이에서 같은 제도가 실시된 것이다.

그후 1968년엔 선진국에서 결핵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항결핵연맹산하에 결핵서베이런스연구위원회(TSRU : Tuberculosis Surveillance Research Unit)가 설치되어 국제화가 되고 그간 많은 업적을 남겼다. 1984년 우리나라와 알제리아의 결핵협회가 이에 가입되었다.

.....  
(3면에 이어서 계속)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정부에 예측되던 우선, 특정정치 파벌이나 기회주의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개를 돌리고 참여하지 아니할 것이다.

정부에 등록하고 정부의 교육·훈련을 받고 정부의 지시로 배치·활동하고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는 자원봉사자는 이미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정부의 고용인이며 자원봉사단체는 '제2의 관변단체' '또 하나의 민방위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 경우 이 나라에는 민간의 자발성에 터잡은 '시민사회'는 형성될 수 없고 정부의 지시와 혜택만 쳐다보는 전근대적 '타율사회'로 남게 되며, 급기야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 사회적 기반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자라나고 타율사회는 독재주의를 부른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 이미 도시를 중심으로 수많은 중산층이 형성되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지식인력, 특히 주부 등 여성인력과 대학생, 직장 은퇴자들이 무엇인가 사회에 보람있는 일을 회구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자생적 시민단체들이 결성되어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이미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모임을 만들어 정신병원, 고아원, 양로원, 장애자재활원에서 묵묵히 활동하고 있고, 선거 때마다 자생적 시민단체들이 선거감시에 나서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이러한 현실적 바탕을 토대로 이를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하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겠다. †